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Korean American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발행번호 5 **봄Spring 2015**

KoAm 에세이– 임성철 목사

새 둥지

10여 살까지 나는 흙으로 만든 초가집에 살았다. 정말 옛날 식의 초가집이다. 멀리서 보면 집 균형이 잘 맞지 않아 한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벽면의 흙은 떨어져 가는 집이었다. 창문은 한 40cm 정도의 크기에 창호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밖이 보이지 않았다. 밖을 보고 싶으면 손가락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어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머니께 혼난 적도 많다.

방으로 통하는 문 앞에는 까만 마루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마루 색깔이 진한 갈색을 넘어 거무티티한 색이었을까. 처음은 깨끗한 나무 판자였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그 초가집 처마에는 늘 제비집이 있었다. 봄이면 어김 없이 찾아와 새끼를 낳고 커서 나가는 것이다. 제비가 알을 낳은 것도 궁금하고, 벌레를 물고와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이 궁금해서, 그것을 보겠다고 서랍장을 옮기려다가 할머니에게 여러번 혼난 적도 있었다. 사람 손이 타면 제비가 도망간다 하며 제비집을 잘 돌보시려 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 제비집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 마루 위에 있으니 제비똥만 자꾸 떨어지고, 때로는 지나가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그것이 떨어지는 사고 속에도 제비집을 잘 지켜주는 것이 옛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물론 자연의 큰 그림을 본다면 많은 해충을 먹어 주니 좋은 일이겠지만...

트라이시티의 교회 처마에도 제비집은 아니지만 새집을 지어 놓았다. 재작년에 이 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있었는데, 작년에도 파란 새알을 낳아 커서 나가고, 올해도 파란 4개의 알을 낳아 두었다. 그리고 2주전에는 우리집 포치의 처마에도 새집을 지어 놓은 것이다.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무슨 배짱으로 그 곳에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다. 포치에 앉아 있을 때면 새들이 내 눈치를 살핀다. 나는 혹이나 내 눈과 마주치면 무서워 도망할까봐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새는 자기 집으로 들어 앉는다. 새가 내 눈치를 살피기 보다는, 내가 새의 눈치를 더 살피는 것이다.

교회 처마에서 3년 동안 새들이 알을 낳고 터나고, 또 알을 낳고 떠난 것처럼 우리 포치에 있는 새둥지에서도 알을 낳고 부화되면 그 새끼들을 먹이고 커갈 것이다. 이 곳 교회부지의 잔디는 아무런 약품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지렁이와 벌레들이 있다. 그러니 새들에게는 더 없이 풍요로운 땅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모여든다. 그들이 이 풍성한 땅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꼴을 먹으며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 옛 어른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집의 새 둥지

교회 처마 새 둥지의 새 알

목차

코암 에세이	1
교회 수련회	2
한인회 소식	2
신앙의 글	3
선교지 소식	3
추천도서	4
그림으로 보는 명상	4

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Time	Fri.(금)	Sat.(토)	Sun.(주일)	Time
7		기상/wake up	기상/wake up	7
8		아침/breakfast	아침/breakfast	8
9			하이킹/hiking	9
10		특강1/Lecture1	짐정리/Check out	10
11		대화2/free talking	주일 예배/Sunday service	11
12		점심/lunch		12
1			점심/lunch	1
2		물놀이/water recreation	집으로/ to home	2
3				3
4				4
5		자유시간/free time		5
6	도착/arrive, 방배정/check in	저녁/dinner		6
7	저녁/dinner			7
8	예배/worship	특강2/lecture2		8
9	대화1/Free talking			9
10	주제내가 생각하는 교회	캠프파이어/campfire		10
11	취침/sleep	취침/sleep		11

수련회 일정표

주제: 한 교회, 한 비전/One church, One vision

장소/Place: Holston Presbytery Camp and Retreat Center, Guenther Lodge/홀스톤 노회 수양관

Banner Elk, NC 28604.
Phone:828-898-6611

일시/Time:2015년 7월 17-19일(2박3일)/ July 17(6p.m.)-19(2p.m.), 2015 (2 nights and 3 days)

준비물:성경,찬송가, 세면도구, 펜, 노트, 옷, 수영복, 운동화, 편한신발, 따뜻한 옷 등

등록마감: 6월 14일 주일까지

캠프 파이어 장소

식당

포치

호텔방

예배와 모임 장소

산책로

한인회 소식

트라이시티 한인회

이 지역은 100여명의 한인들이 사는 작은 한인 지역이지만 오래 전부터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해마다 2-3번의 모임을 갖는다. 주로 추석과 설날이 있는 때에 모임이 있다.

한인회에 관심있으신 분은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갑식 회장
423-288-6279(h)
kabseo@gmail.com

신앙의 글

기도문 - 이어령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별사탕이나 혹은 풍선 같은 것을 만들지만 어둠 속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개비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셨지요 하나님, 바람개비를 든 채 잠들어버린 유원지의 아이를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실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 은빛 날개를 펴고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를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작은 한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발톱처럼 무디어진 가슴을 찢어야 하고 코피처럼 진한 후회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데, 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도 다 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원컨대 아주 작은 모래알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가슴 속 깜깜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향기로운 초원에서 기른 순수한 새끼양 같은 나의 기도를 빚겠나이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도 풍금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어령은 문필가이며 교육가이다. 90년대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이화 여자 대학교의 명예교수이다.

무신론자인 그는 딸로 인해 회심하게 되었다. 이 시는 죽은 딸을 위해 쓴 기도문이다.

선교지 소식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Kyle Wilson(카일 윌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되었습니다. 듀크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얼마전 미국인에서 멕시코인이 되어 보낸 멕시코 시민권 사진입니다.

TRICITY KoAm 트라이시티 코암

봄Spring 2015

트라이시티한인장로교회 TRI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편집인: 임성철 목사

Editor: Seong Im
2109 Carolina Ave.
Bristol, TN 37620
www.tricitykpc.org

전화: 404-683-2565

Email: isaacim86@gmail.com

기고와 보내는 방법: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글이 있으면 편집인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 주소 TO;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추천

이 책은 남자와 여자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설명한다. 남녀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생각하고 지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있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일단 읽기 시작하면 남녀의 너무 다른 모습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그림으로 보는 명상

미국에서만 매해 낙태로 100만명 이상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생명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다.